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성명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테마기획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인터뷰 2018 평창 패럴림픽의 반짝이는 별, 이소정 양

포커스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두름

04 | 시선집중

▶ [성명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06 | 테마기획

▶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08 | 인터뷰

▶ 2018 평창 패럴림픽의 반짝이는 별, 이소정 양

10 | 포커스

▶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머그컵 얼룩을 닦은 날
이성희(시각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13 | 월드 리포트

▶ 미국 오하이오 주, 시각장애인 투표 접근성 보장키로
▶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시각장애인 미술가, 티나 블래터

14 | 뉴스앨범

▶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메이크업을 배워요!
▶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양평으로 떠나요!
▶ 제33회 점역·교정사 검정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시즌7’ 개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5월이 제철인
두름이 눈에 띄는데요.

두름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 ●● ○○ ○○ ●●
○○ ○○ ○○ ○○ ○○
○○ ●● ○○ ○○ ○○
두름

인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 일람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
받 침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쓰받침 ⠠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ㅣ ⠠					
	ㅐ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ㅐ ⠠ ⠠		ㅑ ⠠ ⠠		ㅓ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육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약 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숫 자	수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운뎃점 (.) ⠠ ⠠		말줄임표(...) ⠠ ⠠			말줄임표(...) ⠠ ⠠			소괄호() ⠠ ⠠			대괄호[] ⠠ ⠠	
영 어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아포스트로피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ㅊ, 다음에 약자 영 ㅅ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성명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생필품 구매 등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3곳을 상대로 지난 2017년 9월 7일에 전국 963명의 시각장애인이 서울중앙 지방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재판이 2018년 4월24일 15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7호에서 제30민사부에 의해 진행된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11일 부터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민간 기업에까지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확대되었다. 적용 대상도 5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2013년 4월부터 는 모든 법인이 의무 준수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준수 적용 이후 5년, 법 시행 이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자리 걸음이다. 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재판부는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법으로써 의무 준수 적용을 보장해주는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명을 해야 할 사태가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서비스 이용차별을 호소한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움직이려는 기업의 수동적인 행태를 재판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만약,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찾도록 이 재판의 의미를 촉구하여야 하며, 기업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도 고객이다. 기업들이 외치는 고객은 왕이라고 하는 서비스 정신과 책임에서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전국 26만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250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꼭 신고해주세요!**

최근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잔혹한 학대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가 개봉 했는데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교장과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 성폭행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판결이 완료되었던 2005년 광주인화 학교 사건을 소재로 한 ‘도가니’입니다. 영화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은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는 데요, 장애인 학대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애인 학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애인 학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로는 신체의 일부나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신체의 억압, 감금, 출입 통제 등의 행위를 일컫는 신체적 학대가 있습니다. 언어 또는 비언어적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학대는 정서적 학대에 속하는데요,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매매 강요, 원치 않는 성적 행동 강요 등도 장애인 학대 중 성적 학대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 역시 경제적 착취 및 학대에 속하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하거나 보증계약 체결 또는 채무 발생,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학대를 발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그냥 지켜보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 당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는 국번 없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인 1644-8295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전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 및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은 신고 의무자에 속하며 이 외에도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

장애인 학대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대가 일어날 경우 즉시 신고해주신다면 학대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활동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요양기관 등의 종사자



의료인 등

의료인 · 의료기사
구급대원 · 응급구조사



교육기관 종사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 학교의 교사/교직원
학원 강사 등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

성폭력 · 성매매피해
가정폭력 · 다문화
한부모 · 청소년 등의
상담소 및 보호기관 종사자

2018 평창 패럴림픽의 반짝이는 별, 이소정 양

Q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서울맹학교 중등부에 재학중인 중학교 2학년 이소정 입니다. 노래를 듣는 것과 하는 것 모두 좋아합니다.

Q 지난 2016년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A 스타킹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 때 제가 13살이었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원 학교에서 제작한 음반에 참여했었는데요. 희귀난치질환 및 장애 환아를 위해 제작했던 앨범 '아름다운 세상'의 메인보컬 이었습니다. 스타킹 쪽에서 이 앨범을 듣고 연락을 주셨고 감사하게도 제가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Q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노래를 따로 배우신 건가요?

A 따로 노래를 배운 것은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니 다니는 교회에서도 노래를 자주 부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아동 CCM 음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것은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A 제가 노래를 특별하게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CM 음반을 녹음하면서 진로를 음악과 관련된 쪽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부르는 것인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음악 감상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노래를 부르며 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숙



지난 3월을 뜨겁게 수놓았던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개막식을 보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청아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한
이소정 양을 만나보았습니다.

사 생활을 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보니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Q 2018 평창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A 제가 한빛맹학교에 다녔을 때 한빛예술단의 국장님을 통해서 개막식 공연을 제안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연출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때에는 저 말고 다른 후보들이 있어서 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연락이 왔고, 개막식 공연의 스토리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공연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연에 임하셨나요?

A 제가 평소에 무대공포증이 심해서 너무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공연 전에 만원짜리 우황 청심환을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시작하니 청심환 덕분인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Q 패럴림픽 공연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사람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족들이 너무 좋아해주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두 명 있거든요. 그런데 패럴림픽 공연 이후에 어딜 가든 제 자랑을 해요. 지나가다가도 사람들에게 “우리 언니가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을 했어요!”라고 할 정도로요. 가족들이 좋아해주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패럴림픽 개막식 공연을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림픽은 중계방송 3사와 다양한 인터넷 방송사 등에서 방영을 해 주지만 패럴림픽 중계방송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패럴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방송사에서 중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신체는 불편하지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카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점자카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017년 9월, 전 카드사에 대해 국내 25만 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카드를 발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자카드 발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물이나 홈쇼핑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도 어렵지만 접근해 쇼핑을 하더라도 결제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갑갑 먼’ 점자결제카드
25만 시각장애인 외면

카드사별 발급 가능한 점자카드	
국민카드	모든 카드 가능
신한카드	LOVE 카드, Hi-Point 카드
삼성카드	삼성카드4
롯데카드	포인트 플러스 클래식 카드
우리카드	위비할인 · 포인트 카드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 정보와 유효기간 등을 입력해야 하는데 현재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는 적혀있는 정보를 읽을 수 없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카드사에서 점자 카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지도 않으며, 점자 카드가 있다는 것을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카드사는 지난 2월부터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센터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점자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소수다 보니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카드의 약관 등 카드와 관련된 정보 역시 점자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루 빨리 기본적인 결제 수단인 카드를 시각장애인들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카드 종류, 카드사 등 환경의 제약 없이 점자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머그컵 얼룩을 닦은 날

이성희(시각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해가 저물고 어김없이 새로운 달력을 폈다. 퍼기가 무섭게 며칠이 아주 재게도 지나갔다. 한겨울 용하게도 맨살을 찾아 그 독한 한기로 그 여린 곳을 때리고 잡을 새도 없이 지나가버리는 바람처럼 말이다.

이 맘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내 삶을 리셋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으면 하고 말이다. 내가 이랬으면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 볼까 하면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그 마음 내게 허락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하얀 머그컵에 얼룩이 낀 것을 본 지가 꽤 되었다. 처음 사왔을 때의 깨끗함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얼룩을 볼 때마다 떠올렸던 것 같다. 천성이 게으르다 보니 미루고 미뤘다.

오늘 아침,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고 우연히 그 머그컵을 보게 되었다. 여전히 얼룩이 져 있었고 전보다 얼룩은 더 퍼져 있었다. 새 해의 날들이 더 달아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일었다. ‘우선 이 컵부터 닦아 보자.’

‘머그컵 얼룩 제거’라고 검색 사이트에 입력하니 참 글이 많기도 했다. 첫 번째 방법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안 하던 일이라 그런지 네티즌들이 뭐라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얼른 머리에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다른 여러 방법이 적혀 있긴 했는데 베이킹소다 활용하는 것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정말 큰맘 먹었다. 오늘 하루도 어물쩍하다가 해 넘어 갈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도 모르겠다. 베이킹소다를 컵마다 서너 숟가락 떠서 넣고 물을 끓여 부었다.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솟았다. 속이 다 시원한 느낌이었다. 잠시 기다린 후 수세미에 주방세제를 묻혀 닦아 행켰다. 어라, 기대한 만큼 아주 깨끗하지는 않았다. 어렵게 먹은 큰마음인데 결과가 영 맘에 차지 않았다. 이번에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남은 얼룩 쪽을 집중 공략했다. ‘칫솔이 좀 더 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칫솔을 쥐고 있는 손이 얼얼할 정도로 힘을 주어 닦았다. 그러고서 다시 물로 행켰다. 좀 나아지기는 했어도 바라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무엇이든 흔적은 남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다. 살면서 쓸데없이 쌓인 먼지나 때가 좀 벗겨진 기분이 들기도 한다. 물건이든 감정이든 더 이상 소용에 닿지 않는 것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올해의 첫머리에는 머그컵이라도 닦아 기분이 좋다. 좋은 한 해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 시각장애인 투표 접근성 보장키로

지난 4월부터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시각장애인도 투표의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하이오 주의 장애인 권리를 책임지는 Disability Rights Ohio에서 제기한 소송 덕분이었는데, 그 동안 오하이오 주의 시각장애인들은 투표에 참여할 때마다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도움을 청하거나 투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의 비밀성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오하이오 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부재자 투표 접근성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1월 선거부터 사용될 예정이며, 9월까지 테스트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시각장애인 미술가, 티나 블래터

티나 블래터는 미국 캔자스시티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미술가입니다. 선천적 각장애인으로서 태어난 그녀는 미술을 매우 사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인 그녀가 미술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 풍경화를 그리는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캔버스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가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러 캔버스에 나누어 그린 뒤 그것들을 합쳐 한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메이크업을 배워요!

지난 4월 20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 하여 아모레 퍼시픽의 사회공헌 활동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간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시각장애인에게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교육 해주어, 시각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신감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시각장애인 여성 10명과 자원봉사자 11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4명이 모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화장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배워보니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즐거워했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양평으로 떠나요!

지난 4월 14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 12가정이 함께 시각장애인가정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경기도 양평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첫번째 순서로 양평 별내마을에서 돈가스를 만드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뒤 딸기를 따고 점심으로는 직접 만든 돈가스를 시식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한과 만들기과 레일 바이크를 즐기는 시간 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가정들은 “화창한 봄날,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33회 점역·교정사 검정시험, 합격을 기원합니다!

4월 21일, 2018년 제33회 점역·교정사 검정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점역·교정사 검정시험에는 249명이 신청해 237명이 응시했습니다.

이번 점역·교정사 검정시험은 국어, 수학/과학/컴퓨터, 영어, 음악, 일본어의 5과목에서 진행되었는데, 수험생들은 열심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느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합격 예정자는 5월 11일 금요일에 발표되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 25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SC제일은행,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시즌7’ 개최!

지난 4월 20일, SC제일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한도서관 프로젝트 시즌7’의 막을 열었습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만 2천여 명이 목소리 재능기부를 위해 모였는데, 이번 오디오북의 테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시아 여행안내서’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선발한 25명의 시각장애인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101명의 목소리 기부자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아시아 여행 안내 오디오 콘텐츠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 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맹학교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모두 42곳에 기부되며,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의자를 권할 때

‘뒤에서 밀거나 앞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시각장애인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에 살짝 대어 주
세요. 의자의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게 되면
어디에서나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책상과 함께 있는 의자에 앉게 될 경우 한 손은 의자
에, 다른 한 손은 책상을 닿게 해주시면 바르게 앉을
수 있습니다.



I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5월 214호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